

푸른  
옷에  
실려간  
내  
청춘

● 김 학 민

\*김학민님은 민청학련 사건시 연세대 경제학과에 재학중이었으며, 석방후 1980년대 말까지 민청련,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민통련 등에서 민주화운동에 전념했다.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정치에 입문하여, 현재는 열린우리당 용인시을지 구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 1972년 10월

1972년 10월 17일, 그 날은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었다. 평소에 가깝게 어울리던 경제학과 친구들 모두 흥분분하게 시험을 마치고 좀 이르게 약속대로 청진동 평양집에서 빈대떡에 막걸리잔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후 6시쯤이었을까, 한 친구가 혈레벌떡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야, 계엄령 내렸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외 한 장을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그 기능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하며, 이를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던 바, 박정희의 남북대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는 성명이 있었지만, 이는 누가 보아도 장기 독재체제로 가겠다는 국민 협박에 다름 아니었다.

이 호외 내용을 둘러보고 나자 술자리는 한 순간에 울분의 자리로 변해버렸다. 모두들 흥분하여 박정희를 욕하고 규탄하였으며,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김학열(현재 한국은행 국제협력실장), 나종규(현재 산업은행 이사)는 그 자리에서 ‘고시 포기’를 선언하였다.

그 날 술자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른다. 당시는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였고, 또 그날부터 통행금지가 밤 10시로 당겨졌으므로

일찍 자리가 파하여졌겠지만, 난 술로 엉망인 채 망연자실 광화문 네거리를 건넜던 기억만 난다.

학교는 휴교이고, 이튿날부터 딱히 갈 곳도 없었다. 오후쯤 녹번동에 사는 고교 친구 신동욱(당시 연대 신학과 재학)을 찾아가는데, 마침 고교 후배 이종만(당시 연대 수학과 재학)이 와 있었다. 셋이서 박정희의 폭거에 대해 흥분하여 이야기하다가, 이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당시 신동욱은 나치 하의 저항 신학자 본 회퍼에 심취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적극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졸업 후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서 목회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 셋은, 우선 박정희의 소위 '10월유신'을 반박하는 선언문을 작성, 서울시내 요소요소에 뿌리기로 했다. 신동욱과 내가 선언문을 쓰고, 이종만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등사기를 잠시 슬쩍해 오기로 했다.

10월 19일, 다시 신동욱의 녹번동 집에 모여 선언문을 쓰고, 이를 이종만이 '가리방'으로 굵어 등사기로 몇 백장을 인쇄하였는데, 살포 방법이 문제였다. 그 즈음은 계엄령 치하라 경계가 워낙 삼엄하였고, 또 우리 모두 투옥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뿌리기에 아직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나에게서 묘안이 떠올랐다. 나는 군대 시절 포차 운전병이었는데, 그때는 워낙 물자가 부족하던 때라 겨울이면 저녁에 동파 방지를 위해 자동차 밧데리를 떼어내서 내무반으로 가져오고, 아침에 이를 다시 자동차에 설치했는데, 트럭용 밧데리라

너무 무거워 등에 지고 다녔다. 그런데 등에 지고 옮기느라 아 무래도 황산이 원액인 밧데리액이 옷에 될 수밖에 없었는데, 밧 데리액이 묻은 자국은 곧 구멍이 뽕뽕 났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선언문 봉치를 봉대로 묶고, 이를 신세계 백화점 옥상 난간에 묶어 놓은 다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황산액을 봉대에 살짝 묻혀 끈이 삭는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백화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 그 스릴, 그 감격, 지금도 잊지 못한다. 건너편 중앙우체국 앞에 서서 우리가 쓴 어설픈 박정희 규탄 선언문이 팔랑팔랑 떨어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첫 번째 ‘저항운동’이 성공한 것을 명동 뒷골목에서 막걸리잔을 나누며 축하하면서 다음 계획을 세웠지만, 저항운동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 탓에 신동욱의 아버지에게 ‘범죄도구’ 일체가 발각된 것이다.

이후 신동욱의 부모님의 감시의 눈이 무서워 동욱의 집에도 가지 못하고, 2, 3일 집에 있으면서 책을 손에 잡아 보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리 없었다. 며칠 후 답답한 마음에 학교에 가보았지만 교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계엄군만이 완전무장을 한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치떨리는 분노가 일어났다. 그리고는 또한 속으로부터 끝모르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우리에게, 이 나라에 진정 희망이 있는가? 마음 속으로 무수히 ‘박정희 개××!’를 외쳐보지만, 그것으로 쌓이고 쌓인 분노와 절망감이 녹여질 수는 없었다.

## 김동길 · 김찬국 교수

교문 앞에서 목표없이 서성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김동길 교수를 떠올렸다. 김교수에 대해서는 평소 글을 통해 깊은 흥미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과가 다르지만 교양 과목을 직접 수강신청하여 강의도 듣고 있었던 차였다.

김교수는 마침 댁에 있었다. 나의 분노와 절망감과는 달리 김교수는 평소의 그이답게 농담도 하는 등 시국에 대해 의외로 희망과 낙관을 갖고 있었다. 투철한 민주주의 의식, 진보의 역사관으로 무장한 자유주의 역사학자인 그이로서는 당연한 전망이었겠지만, 나로서는 잿빛 구름을 걷어내는 역사의식의 새로운 개안이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의 암울을 이겨내는 길이 열림을 느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내고 김교수 댁을 나오려는데, 김교수는 나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 자기의 에세이집으로, 이미 인쇄되어 다 만들어진 책인데 계엄중이라 아직 서점에는 배포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나는 책을 받아 표지를 보고서는 머리를 스쳐가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길은 우리 앞에 있다! 우리에게 절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는 혼자 생각해보았다. 이 책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국의 민주화와 인간해방에 대한 굳은 신념, 그리고 타오르는 희망의 불길이다. 그렇다면 유신독재정권의 폭력과 압제 하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이 책을 읽혀 보자.

이튿날 신동욱과 함께 책에 나온 주소를 보고 출판사를 찾아갔다. 삼육빌딩은 그 구조가 이상하여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쯤에 또 사무실들이 있었는데, 범우사는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서 윤형두 사장을 처음 만났다. 그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 권 구입해 읽었던 『다리』지에서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윤사장과는 긴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말하니, 열심히 해보라고 했다. 그때의 느낌으로는, 윤사장은 김동길 교수의 책을 보급하는 것이 나중에 사건이 될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같고, 또 영세 출판사로서는 영업에도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같았다.

책을 20여 권 가져와 도서관에서 친구들에게, 교회·성당 대학생회에서 팔았는데 그야말로 날개돋힌 듯 팔렸다. 청년 학생들은 그 책을 보고 굶주린 짐승이 먹이에 달려들 듯하였고, 그 책 속에 담겨있는 희망의 언어들에 전율하였다.

수도교회, 동부교회, 제일교회, 새문안교회 대학생회 등에는 아예 10여권씩 갖다 놓고 나중에 팔린 책값을 받아오기도 했다. 2,3일에 한번씩 범우사에 들러 책값을 입금하고, 또 새로 책을 10여권씩 가져왔다.

이렇게 100여 권을 팔았을 때였다. 어느날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조금 전에 중앙정보부원이 왔다 갔다는 것이었다. 산천초목도 떠는 중앙정보부! 한번 들어가면 반쯤 죽거나 아예 죽어서 나온다는 중앙정보부! 아찔했다. 그날 밤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낮에는 삼류 극장을 전전하고, 저녁에는 봉원동 함석헌 선생

의 퀘어커모임 집에서 잠을 잤다.

처음 생각으로는 대충 며칠 피해다니기만 하면 별일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집에 연락을 해 보니 사정이 아주 복잡해져 있었다. 정보부원들이 누님이 세들어 있는 약국 건물이 무허가인 것을 꼬투리 잡아 괴롭히고, 형님의 직장으로 찾아가 형님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자수'하기로 했다. 그들이 집에 남겨준 메모대로 프린스호텔 커피숍에서 전화를 걸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건장한 두 명의 정보부원이 왔고, 나는 그들에 이끌려 정보부 6국으로 갔다. 6국에 들어서자마자 무수히 얻어 맞았지만, 나는 끝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 우기며 버텼다.

하루종일 실랑이 끝에 그들도 더 이상 사건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내 말대로 진술서를 받고 책을 산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케 했다. 그리고는 나를 풀어줬다. 만 이틀만이었는데, 이로부터 정보부와의 질긴 인연이 시작되었다.

## 1973년, 절망에서 희망으로

1973년이 되었다. 1972년 12월, 유신헌법은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되었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유신체제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갈봉근, 한태현 등 어용 법학자들은 유신헌법의 나팔수가 되어 전국을 누비며 해피한 논리를 전파하는가 하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들은 굳게 재갈이 물려 온 나라는 문자 그대로 침묵의 바다였다.

새학기를 맞아 대학은 문이 열렸지만, 이미 자유, 정의, 진리 따위는 공염불이 되었고, 교수나 학생 모두 잔뜩 움츠러 들어 캠퍼스는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다.

무엇을 할까? 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학생운동의 주력이던 서울대와는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경제학과 후배 정진호군이 서울대 김병곤 등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은 그해 10월 경에야 알게 되었고, 또 그 암울한 분위기에서 전국적인 조직운동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당시 연세대학교는 박대선 총장이 3선째 연임하고 있었는데, 박총장의 대학 운영에 교수와 학생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재정, 학사 문제 등 학교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학생협의회'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였는데, 이것은 일종의 학원 자율화운동으로,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움츠러 들었던 학생운동의 동력을 끌어낼 생각이었다.

경영학과의 박노인, 경제학과의 정진호, 철학과의 정성호, 그리고 나와 자유교양회, 인간걱정회, 목하회 등의 서클원들이 '교수학생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섰는데, 나중에 민청학련사건으로 같이 구속된 경제과 김영준, 경영학과 송무호와 그들이 속한 한국문제연구회 회원들은 이런 '우회적 전술'에 그리 찬성하지 않는 눈치였다.

이러구러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었다. 우리들은 9월 말에 있을 연고전을 기해 '한판' 하기로 했다. 아무리 유신독재정권이라 하지만 양교의 전통적 체육행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연고전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시가행진'을 유신정권 규탄 시위



로 몰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후배들과 함께 유인물도 만들어 뿌리고, 행진 도중 운동가, 구호도 외쳤지만, 경찰이 모른 체 해버려 오히려 우리들이 당혹스러웠다. 아! 그때 경찰이 최루탄도 쏘고 곤봉으로 행진 대열을 두들겨 패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월 3일이었다. 김동길 교수와 나, 김영준, 신동욱, 정진호 등과 사학과 학생들 몇 명이 천마산으로 등산을 갔다. 우리들은 전날 서울대에서 있었던 유신체제 하 최초의 시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정진호가 서울대의 선언문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모두 돌려 읽고 그로부터 서울대의 시위계획을 들었다.

여기에서 김동길 교수와 함께 유신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을 조금 들은 것이 나중 민청학련 사건시 김교수와 나, 그리고 김영준에게 덧씌워진 소위 ‘천마산 모의’이다. 등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집으로 가지 않고 나와 김영준, 신동욱, 정진호는 연세대 시위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장승백 이에 살던 건국대생 김영섭군의 집에서 합숙에 들어갔다.

그토록 강고하게 보이던 유신체제는 꼭 1년만에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서울대 문리대, 상대, 법대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각 대학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유신체제 규탄 시위가 벌어졌으며, 연대에서도 11월 중순 조기방학이 결정되기까지 몇 차례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11월 8일 오전 10시쯤이었다. 집에서 막 나와 학교에 가려는데 두명의 사내가 옆에 붙어서더니 내 양 팔을 낚아챘다. 신분증 제시고 뭐고 없이 바로 짚차에 태우더니 서대문경찰서로 연행했

다. 나는 나의 체포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으니, 그 즈음에는 시위 전면에 나선 적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10월 중순 김동길 교수의 주선으로 「뉴욕타임즈」 동경특파원 리차드 헬러런과 한국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포착되어 연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김동길 교수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정리하나 걱정되었다.

그러나 정보과 형사들은 유인물 한 장을 제시하더니 다짜고짜 구타하면서, 나의 소행임을 자백하라고 으러댔다. 나로서는 ‘오리발’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 결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나를 무수히 구타하여도 자백을 않자 할 수 없이 내보내 주었는데, 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감옥에서 신학과 최민화군이 이재웅(현재 동의대학교 교수)을 시켜 뿌린 유인물임을 알고 크게 웃은 적이 있다.

11월 초든가. 휴교로 도서관은 학생들로 꽉꽉 찼다. 나는 당시 경제학과 3학년 과대표이던 김학열과 의논하여 상대 도서관 학생들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김학열은 제주 오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 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강창일(현재 배재대 교수)과 함께 삼선개헌 반대시위를 벌여 소년수로 광주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을 정도로 일찍부터 정의감이 충만한 친구였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논리가 정연한 김학열이 도서관 책상 위에 올라가 유신헌법 반대 성토를 하고, 경제과생들을 주축으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백양로를 달려 내려갔다. 휴교중이라 ‘안심’하고 있던 경찰이 허겁지겁 몰려온 것은 이미 시위대가 교문을 나선 후였으니, 한국 최초의 휴교중 시위의 성공

이었다.

1973년 12월, 윤보선, 함석헌, 김재준 등 각계인사 50여 명은 박정희 1인독재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신헌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성명하고, 그 실행방법으로 이 성명에 서명한 인사들 각자가 서명운동 본부가 되어 시민 서명을 받기로 했다.

그때 연세대에서는 김동길, 김찬국, 문상희 교수께서 이 성명에 서명했었는데, 나와 김영준, 신동욱 등은 1월 3일 김동길, 문상희 교수에게 세배를 드리고 오면서 막상 서명은 김찬국 교수 덕에서 했다. 이때 우리들 이외에도 같이 있던 신학과 학생들, 연세기독교학생회 회원들도 모두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4월 김찬국 교수가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월 8일, 소위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 개정운동을 철저히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긴급조치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73년 가을의 동력을 모으면 새학기쯤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었다.

겨울방학 내내 나는 자유교양회, 인간걱정회, 적십자회, 목사회, 가톨릭학생회 후배들을 규합하느라 분주했다. 자유교양회 송재덕, 오세룡, 적십자회 이상우, 김동수, 목사회 신동수, 문유찬, 정진섭 등이 논의에 합류했다. 정진호가 73년 10월에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서울대와의 연결은 김영준으로 넘어갔다.

딱 의논하여 역할분담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연대내 서클들을 규합하는데 힘을 쏟았고, 김영준은 서울대와의 연결, 송무호, 홍성엽은 한국문제연구회 회원들을 맡았다. 그리고 우리들

과는 다른 선으로 최민화, 서창석, 이재웅 등이 KSCF에서 활동하면서 연대기독교학생회 회원들을 움직여 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감옥에서 알게 된 사실이다.

내가 접촉했던 연대 후배들 중에서 송재덕, 이상우는 민청학련사건으로 함께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고, 그의 후배들도 중앙정보부에 끌려와 큰 곤욕을 치렀다. 그중 휘문중학교 시절 내 가정교사 제자였던 신동수와 식품공학과 정진섭은 4월에 구속되어 7월어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으니, 실제적으로는 실형을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징역맛을 톡톡히 본 셈이다.

이때의 활동은 민청학련 재판시 나의 항소이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나로서는 역사적 자료이므로 전문을 소개한다.

## 항소이유서

본인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음모 등의 죄명으로 1974년 8월 12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관으로부터 '징역 20년'의 구형을, 동월 14일 동 군법회의 재판장으로부터 '징역 15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검찰관의 공소 사실은 본인의 행위와는 전혀 일치되지 않게 강요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소 사실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들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피고인 김학민은 1974년 1월 9일 12:00경 연세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김영준 등과 회합한 이래 동년 3월 26일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김영준, 송무호, 김동길, 김찬국 등과 만나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한 공소사실과, 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첫째, 경찰 및 검찰조서는 본인의 행위 사실과는 다르게 조작되었으며,

둘째, 이러한 조작된 조서를 근거로 작성된 공소 사실은 본인의 행위와는 다른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셋째, 따라서 이러한 조작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본인의 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항소 이유를 밝힙니다.

### 1) 경찰 및 검찰조서 작성시의 고문과 조작에 대하여

본인은 1974년 4월 3일 본건에 대해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받아 오던 중 동월 중순까지는 중앙정보부에서, 동월 중순 이후에는 육군보안사령부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① 그 때에 담당 수사관은 며칠씩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본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가면서 수사를 하였으며, 온갖 공갈 협박으로 ‘노동자 농민’ ‘폭력혁명’ ‘첩선’ 등 사회주의적인 용어를 자술서에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② 또한 1974년 5월 중순 육군보안사령부에서의 김동길, 김

찬국 교수에 대한 본인의 참고인 진술서 작성 시에도 담당 검찰관은 본인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을 입회시켜, 두 교수에 대한 조작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도록 위협과 공갈을 하였습니다.

③ 1974년 6월 중순 김영준에 대한 증언에서도 본인의 부인은 일체 인정되지 못한 채 검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에 날인만을 강요했습니다.

④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1974년 7월 29일부터 동년 8월 1일까지의 검찰관 취조시 본인의 진술은 일체 묵살된 채 검찰관과 서기의 일방적인 경찰 조서의 복사관에 날인만을 강요했으며, 담당경찰관은 1974년 8월 8일과 동년 8월 10일 양일에 걸쳐 본인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와 공판시 공소 사실을 시인하도록 온갖 협박과 회유로 공소 사실의 조작성을 은폐하려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서는 고문과 협박으로 사실대로 진술되지 못했으며, 수사관과 검찰관의 조작된 조서에 날인만을 강요했을 뿐입니다.

## 2) 조작된 공소 사실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조작된 공소 사실은 모두 허위 날조된 것이므로 이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대로의 본인의 행위를 밝힙니다.

① 공소 사실의 행위 중 1973년 10월 3일 천마산 등산시 김동길 교수, 김영준과의 모임에서 반정부 데모를 결의했다는 주장은 이미 1973년 11월 8일 본인이 연세대 내의 유인물 살포 용의

자로 연행되어 갔을 때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에서 온갖 고문으로 반정부 데모계획 모임으로 조작하려다 실패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다시 들추어 본인들의 범죄행위로 인정함은 지극히 악질적인 수법으로, 상식 이하의 가소롭기 짝이 없는 조작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② 1973년 11월 28일 김동길 교수, 김영준과의 회합은 당시 김영준이 악질적인 서대문경찰서에서 고문을 받고 석방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지, 공소 사실과 같이 본인 등이 반정부 데모 계획을 보고하고 김교수가 이를 승인, 사후 수습을 책임 맡았다는 사실은 일체 중앙정보부의 조작입니다.

③ 본인 등은 1974년 1월 2일 김찬국 교수 맥에서 개헌청원 운동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들 자신의 생각에서 하였지 김찬국 교수의 지시로 한 것이 아닙니다.

④ 공소사실 1항, 2항, 7항, 8항, 10항에서 본인 등이 유신헌법을 비난하고 반정부 데모를 모의했다는 공소사실은, 상기 5회의 모임에서 유신헌법, 1·8조치에 대해 비난은 했으나 폭력 데모에 대한 모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야기했던 것은 교수학생협의회의 구성, 교내 언론의 자유화와 학칙개정 문제 등 제반 학원의 자유와 자율성의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공소 사실 6항, 7항, 12항, 13항과 같이 정건섭, 김동수, 오세룡과 만나 “폭력 데모에 가담하라”고 포섭하였다고 운운한 공소사실은 조작된 각본의 허구성을 충분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⑤ 공소사실 3항, 9항, 14항에서 본인 등이 김찬국 교수, 김

동길 교수를 만나 폭력데모 계획을 보고하고 그들로부터 후원을 약속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두 교수를 구속하기 위한 중앙정보부의 악독한 조작 수법의 일환이었으며, 본인이 검찰관 취조시, 또 1심 법정에서 계속 부인했으나, 이를 목살 일방적으로 검찰조서를 작성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⑥ 공소 사실 11항에서 본인 등이 1974년 3월 2일 15시 연대 도서관에서 폭력 데모 모의를 하고 구호 선언문을 작성했다는 범죄 사실은 본인은 그날 학교에 간 일조차 없고, 평가교수단의 일원으로 지방시찰 중이었으니, 가히 서투른 조작극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무근인 이 공소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본인의 범죄사실을 주장한 공소장이 얼마나 허위에 차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⑦ 공소 사실 15항에서 본인 등이 1974년 3월 26일 대지다방에서 폭력데모를 모의했다고 주장한 공소사실은 평범한 친구들과 과의 잡담을 반정부 데모 모의로 조작한 허위자백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인 등이 전후 15회에 걸쳐 정부 전복을 위한 폭력혁명을 모의했다는 공소사실은 본인의 행위사실과는 다르게 조작되었습니다.

본인이 영구 독재의 획책 속에,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시키는 이 공화당 독재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나, 이의 시정을 위해 폭력 데모를 모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건전한 비판적 대화를 '모의, 접선, 포섭'으로 조작하여 본인 등을 내란음모 등의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 3) 1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본인은 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본인의 행위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작, 허위 날조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본인과 관련된 송재덕, 이상우 군도 관계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며, 본인에 대한 증인 김찬국 교수, 김영준도 모두 범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만 이들의 법정 진술이 모두 채택되지 못하고 조작된 검찰, 경찰조서만 인정함은 도저히 공정한 처사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문과 조작에 의한 경찰조서와 그 조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소 사실만을 인정하여 판결한 1심 판결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오니 재판장은 사실의 진위를 밝혀 역사에 남을 만한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 바랍니다.

## 1974년 4월

1971년 위수령 때 강제 징집된 친구들이 74년 초에 제대해 나왔다. 그중 몇 명과 접촉해 보았으나 3년간 전방에서 근무하다 바로 나온 친구들이라 '1974년 거사'에 참여하는 데는 모두 머뭇거렸다.

그중 '당생'이 좀 있어 보이는 김용석(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끈질기게 설득했으나 그도 완곡하게 사양했다. 그러나 이 때 김용석이 민청학련에 가담했으면 구속 10개월만인 75년 2월에 풀려났을 터인데, 그는 결국 75년 4월 명동성당 연합시위 모의사건으로 구속되어 장장 4년 반을 복역하였으니, 요즈음도 두



▲ 1975년 2월 15일, 영등포교도소에서 석방되는 김학민

고두고 나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연대 의대는 조기방학에 들어갔지만 중요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의대의 특성상 1월에도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1월 중순 본과 1년생들이 긴급조치 1호 하에서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어 고영하(현 열린우리당 노원갑지구당), 문병수(현 용인 세브란스병원 의사) 등 7명이 구속되어 군법회의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974년 3월 새학기는 박정권이냐 학생들 모두 초긴장 상태에서 맞게 되는데, 연세대학교는 의대 사건으로 다른 대학보다 개학이 늦어 3월 15일에야 개강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3월 말이 되기까지도 수강신청,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김영준이 담당한 서울대와의 연결선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는 것 같고, 조직동원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1일 채플 시간에 경영학과 송무호군이 단상에 올라가 선언문을 읽다가 끌어내려지는 사태가 돌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불안하게 2, 3일이 지나갔다. 4월 3일 아침 상대 도서관에서 책이나 읽을까 앉아 있는데, 내 담당 남부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들이닥치더니 바로 연행해 갔다. 점심 때까지 남부경찰서 정보과에 아무 조사도 없이 앉아 있는데, 정보과 형사들도 무엇 때문에 나를 연행해 오라 하는지 모르는 눈치였다.

오후 1시쯤 정보과 형사들은 나를 짚차에 태우고 가 남산 중앙정보부 6국에 인계하였다. 정보부원들은 나를 강당과 같은 곳에 데려가 벽을 향해 무릎을 꿇려 앉아 있게 하였는데, 두어 시간을 그렇게 있자니 그 불안 초조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중앙정보부에서의 고문과 구타, 조작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다. 그곳은 원래 그런 데니까. 그들은 연세대 시위계획과 관련자들에 대해 추궁하면서, 그날 저녁에 선포된 긴급조치 4호 내용을 읽어주면서 사실대로 밝히면 자수처리를 해주겠다고 나를 기만했다.

이렇게 정보부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이틀을 조사받고, 4월 5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4월 6일부터는 아침에 정보부로 가 조사받고 저녁에는 감옥으로 돌아오기를 계속했는데, 4월 11일 아침에는 정보부원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데리러 왔다.

연대 법학과 후배 송재덕과 함께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운 채 짚차에 탔다. 정보부로 가려면 독립문 앞에서 좌회전하여 중

양청, 시청, 소공동을 경유한다. 그런데 검은 천 사이로 살짝 밖을 보니 차가 그냥 서대문쪽으로 빠지는게 아닌가. 혹 서대문경찰서로 다시 이첩되는가 했으나, 서대문경찰서도 지나고 서울역 지나 삼각지를 향해 갔다. 군법회의에 검사 취조 받으러 가는가 보다 했는데, 차는 국방부도 지나 이태원쪽으로 계속 달려갔다.

그때 무언가 머리를 스쳐갔다. 아! '서빙고호텔'로 가는구나. 한번 들어가면 못나오든지, 죽어나온다는 그 악명 높은 보안사의 서빙고 분실로. 나는 송재덕의 손을 꼭 쥐고 두 눈을 감았다. 어찌할꼬? 그러나 별 수 있나. 될대로 되라지.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짙차가 들어가자 사복 입은 군인들이 달려나와 나를 지하 감방으로 데리고 갔다. 지하에는 감방이 두 줄로 열 대여섯개가 있었는데, 가로 15cm 세로 5cm 정도의 직사각형 감시구가 뚫려있는 철문이 있고, 그외 벽은 밀폐된 1.5평 크기였다. 그때 그 구멍으로 육군 일등병으로 잡혀와 반대편 감방에 갇혀 있던 홍세화(현재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와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잡혀온 심재식(현재 보훈병원 의사)과 수화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보안사는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에는 정보부와 보안사가 서로 견제하면서 공을 다뤘었는데, 당시는 보안사가 정보부보다 좀 '찌그러져' 있어서 정보부의 뒤치다꺼리를 하는데 보안사 수사관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

민청학련 관련자가 너무 많아 정보부는 KSCF 등 기독교 관계 구속자들과 연세대 학생들을 떼어 보안사로 넘겼다. 그때 다른 대학 친구들은 서빙고로 넘어간 우리들이 무지막지하게 고문

을 당하리라 여겨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밝히건대 정보 부가 지옥이라면 보안사는 천국이였다.

5월 12일이었을 것이다. 그 날이 연대 개교기념일이라 기억하고 있다. 보안사에 가려고 교도관에 의해 끌려 나오는데, 앞에서 푸른 수의를 입은 김찬국 교수가 걸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보안사에서 김동길 교수를 만났다. 나는 그때까지 두 분이 구속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 그때의 그 참담함이라니. 나 때문에 두 분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자 자괴감으로 죽을 지경이었다. 감방에 돌아와 두 분의 구속을 아래층 박형규 목사님께 통방으로 알려드리자, 박목사님은 “야 김학민, 너 김동길, 김찬국 불알 꼭 잡고 있어! 아주 잘된 일이야” 하셨다.

이러구러 1974년 여름을 영터리 재판을 받으며 감옥에서 보내고, 10월 초 안양교도소를 거쳐 영등포교도소에 이감되어 이제 본격적인 15년 징역살이가 시작되었다.

영등포교도소에는 긴급조치 1호로 구속된 백기완 선생, 시인 김지하 선배, 이규상·김동완 전도사, 연대의대생 고영하·김석경이 먼저 와 있었고, 박형규 목사, 나와 최민화, 서울대의 유홍준(현재 명지대 교수), 안양로, 백영서(현재 연세대 교수), 전홍표, 서강대의 박호용, 감신대의 정명기 등이 안양에서 이감 와 합류했다.

우리들은 사식을 신청하면 소내 작은 식당에서 함께 먹게 하므로 매일 사식을 시켜 식당에 모였다. 김지하 선배는 그 당시도 좌중을 사로잡았다. 향시 동서와 고금을 넘나들며 문학, 예술, 철학, 정

치적 주제들을 해박하게 설파하였는데, 한참을 지나다보면 김지하 선배 혼자만의 '살풀이'를 못참은 백선생이 한 말씀 하신다.

“지하야! 나도 말 좀 하자.”

영등포교도소에는 조화공장, 인쇄공장, 목공장이 있었는데, 인쇄공장이나 목공장은 감방에서 작업장으로 나가 일을 하므로 인기가 있었지만, 조화 만드는 일은 죄수들을 감방 안에 둔 채 종이, 풀, 철사 등 조화 재료만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모두 그 일을 싫어했다.

내가 들어가 있었던 감방에서도 조화를 만들었는데, 요즘 돈으로 치면 3, 4천원의 임금을 주었지만 각 개인에게 할당량이 있어 그냥 어영부영할 수는 없었다. 나에게도 조화 할당량이 없었지만, 다른 죄수들이 일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있기도 뭐하여 책을 읽다가 가끔씩은 다른 사람의 일감을 도와 주었다.

이렇게 1975년 2월 15일 석방 때까지 지냈는데, 그때 어떤 죄수를 통해 소내 인쇄공장에서 만든 작은 수첩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때 살짝 구한 불펜심으로 나의 연행에서 석방까지 일지 형식으로 메모해 둔 것이 있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지극히 사적인 내용은 빼고, 민청학련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를 적는 것으로 글을 끝맺는다.

- 1974. 4. 3 09:00 상대 도서관에서 남부서 정보과에 연행됨
- 4. 3 13:00 중정으로 이첩(6국 5과)
- 4. 5 17:00 서울구치소 입감(10사상 19방, 수번 262)
- 4. 10 10사상 10방으로 전방

- 4. 11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이첩
- 4. 16        김영준 만남
- 4. 29        5사상 13방으로 전방
- 5. 10        이현배 들어옴. 아래층 박형규 목사, 유홍  
              준과 통방
- 5. 12 09:00 김찬국 교수 만남  
              13:00 보안사에서 김동길 교수 만남
- 5. 25        강철선 검사에게 김동길, 김찬국 교수에  
              대한 참고인 진술 받음
- 6. 20        군법회의 송치
- 7. 5         김영준에 대한 증인 심문
- 7. 20        법무사 황종태 대령으로부터 두 교수에  
              대한 증인심문 받음
- 7. 25        전세봉 소령에게서 검취 받음
- 7. 27        기소장 도착. 용남진 변호사 변호인 선임
- 7. 29        1심 재판 (박희동 중장, 신현수 소장)
- 8. 11        전세봉 검사 징역 20년 구형함
- 8. 13        15년 징역 언도함
- 8. 18        15년 징역 확인서 도착
- 9. 3         48시간 단식투쟁
- 9. 9         항소이유서 제출
- 9. 15        1차 재판자 이감
- 9. 21        2심 재판(이세호 대장)
- 9. 28        2심 언도(모두 기립하여 애국가를 불러 퇴

장 후 궐석재판)

- 10. 4      향소기각 확인서 도착, 상고
- 10. 10     안양교도소 이감(2동상 24방, 수번 1389)
- 10. 21     상고 취하
- 11. 3      영등포교도소 이감(2사 1방, 수번 522)
- 11. 5      7개월만에 첫 면회( 부모님, 누나, 조카)
- 1975. 2. 15    석방